

#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담론과 유교와의 무관련성 연구<sup>1)</sup>

장 현 근

용인대학교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학연의 병폐와 비유교적 유산   |
| II. 연고주의 개념과 현대 한국의 연고주의 담론       | IV. 유교의 반(反) 연고주의 전통 |
| 1. 연고와 연고주의 개념                    | 1. 반연고주의 유교담론        |
| 2. 한국사회 연고주의 담론의 등장과 유행           | 2. 유교와 극복대상으로서 연고주의  |
| III. 한국 근대화과정 중 나타난 연고주의의<br>반유교성 | V. 결 론               |
| 1. 한국의 산업화와 연고주의 경향의 출현           | 참고문헌                 |
|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유교(Confucianism), 연고주의와 연고사회(nepotism and network society), 반유교전통(Non-Traditional Confucian Values), 사회자본(societal capital), 유가사상의 현대화(modernizing Confucianism)

### 국 문 요 약

유교는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틀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유교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사회학자들은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면서 핵심 동력으로서 유교적 인간관계를 언급하고, 그것을 연고주의로 풀어내어 이른바 거래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근래 한국사회의 연고주의가 원래 유교의 취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소위 유교민주주의니 유교자본주의니 하는 최근의 한국사회 담론들 또한 유가사상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려 한다. 연고주의 담론이 왜 등장했으며 그것이 유교의 본질에 반하고 있다는 논지에서 출발하여, 한국 근대사회 연고주의 담론의 여러 문제와 병폐들을 지적하고, 유교는 원래 반연고주의를 본질로 함을 강조한 뒤 다음 두 가지로 결론을 이끌고자 한다.

1) 이 글은 2006년 12월 15-17일 제8회 환태평양한국학술대회(8th PACKS, 인도 델리 네루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첫째 한국사회 연고주의가 유교 전통에서 유래한 유용한 사회자본으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불철저한 유교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바른 길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둘째 [연고주의 ← 가족주의 ← 유교]라는 도식으로 유교가 연고주의의 원산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거기서 나아가 연고주의가 전통 유가사상에 배치되며, 유가사상의 현대화는 연고주의 탈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I. 서론

현대사회는 여러 면에서 경제우위의 시대이다. 경제성장이 그 어떤 사회 영역의 발전보다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되는 문화적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실 자본의 성장에 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88년 미국사회학회 저널에 콜만(James Coleman)은 사회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적 신뢰에 기초한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2)</sup> 물론 경제학 영역에선 자본의 성장에 관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념이 슉츠(Theodore W. Schultz) 등에 의해 이미 1960년대부터 깊이 탐구되어 왔으며,<sup>3)</sup> 사회자본(혹은 사회적 자본) 관련 일련의 글들은 이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체적 실상을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trust) 개념으로 정의하였고,<sup>4)</sup> 퍼트남(Robert Putnam)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시민사회 발전 등 정치경제 혹은 정치사회학 연구에 적용시켰다.<sup>5)</sup>

이런 연구경향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중계무역을 하던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유교문화'적 전통을 깊이 지닌 나라로 평가되어온 한국 및 대만이 세계 무역체제의 일원이 되어 아시아 경제의 떠오르는 네 마리 용으로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자본성장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해밀턴(Gary Hamilton)은 1980년 전후부터 중국에서의 자본문제를 얘기하는 등<sup>6)</sup> 중국 및 아시아 지역들의 문화적 배경 및 경

---

2) Jame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988), pp.95-120.

3) Theodore 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1961). pp.1-17.

4) Francis Fukuyama,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New York: Free Press, 1995).

5)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이 책은 퍼트남 저,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란 이름으로 한국에도 소개되었음.

6) 예컨대 Gary Hamilton, "Why no Capitalism in China: Negative Questions in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2(1985), pp.187-211. 혹은 Gary Hamilton, "Why no Capitalism in China? Negative Questions in Historical, Comparative Research." *Journal of Asian Perspectives* 2(1985) 등 수십 편의 관련 논문과 저서.

제발전에 관련한 다량의 저술을 펴내기도 했다.

네 마리 용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질 면에서 다른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과 월등히 차이가 나자 이 지역의 문화적 속성에 관한 주장이 많이 대두되었고, 특히 이 네 지역의 경제적 성공이 기발 전국가인 일본을 포함하여 모두 유교<sup>7)</sup>적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유교적 전통과 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연결시키려는 연구가 많았다.

그렇듯하게 보이는 이런 비교연구는 한국에서도 많은 동조자를 만들어냈다.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발전의 동력 혹은 폐해 중 하나로 유교의 연고주의를 지목하고 한국사회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유교적 전통과 경제발전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가운데, 연고주의를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작성하였다. 즉 경제발전과 유교의 상관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유교의 연고주의’란 설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쏟아진 그 많은 글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것이 유교적 전통 혹은 한국적 가족주의의 산물이라고 대다수는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며 출발하였으며,<sup>8)</sup> 소수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논문 내에서 일부 다루고 있을 뿐 정확하게 유교와 연고주의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다룬 글은 아직 없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특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 연고주의가 유교 전통에서 유래한 유용한 사회 자본으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불철저한 유교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바른 길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둘째 [연고주의 ← 가족주의 ← 유교]라는 도식으로 유교가 연고주의의 원산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거기서 나아가 연고주의가 전통 유가사상에 배치되며, 유가사상의 현대화는 연고주의 탈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sup>9)</sup>

따라서 우선 연고주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연고주의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담론들을 분석한 뒤, 유교가 연고주의라기보다 오히려 반연고주의적인 사상임을 밝히고, 따라서 연고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붙인 ‘유교의 연고주의’란 말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7) 유교라는 말은 불교, 기독교 등과 구별하여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며, 구체적인 중국 개념으로는 ‘유가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Confucianism을 표현하지만 보편적 사상으로 표현할 때는 유가사상으로, 현대 한국사회 연고주의 담론을 얘기할 때는 유교라는 말을 사용한다.

8) 예컨대 국민호 1997, 유석춘 1997; 2002, 2003b, 김동춘 1999 등이 그렇다. 각주 25) 참조.

9) 장현근, 「탈(脫)연고주의와 유가사상의 현대화」(Affective Networks and Modernization of Confucianism), Conference on Social Network and Civil Society: A Comparative Approach(City University of Hong Kong, April 1-4, 2002), pp.1-10 참조.

## II. 연고주의 개념과 현대 한국의 연고주의 담론

### 1. 연고와 연고주의 개념

연고란 태생적 혹은 후천적으로 맺어진 자연스런 관계, 혹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얻거나 주어진 인간사회의 삶에서 겪게 되는 폭넓은 연결 관계를 뜻한다. 혈통적 관계인 혈연(血緣), 출생지와 연계된 지연(地緣)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같은 학교 출신을 뜻하는 학연(學緣)이나, 같은 신앙을 지닌 종교인끼리 느끼는 신연(信緣)이나, 같은 직업 혹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직연(職緣) 혹은 업연(業緣)은 후천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를 태생적 연고와 생활적 연고로 나누는 사람도 있다.<sup>10)</sup> 영어사전에서도 특수한 의미부여 없이 relation; connection; affinity; a tie-in 등으로 표현된다.<sup>11)</sup> 따라서 연고에 따른 집단의 존재와 연결망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고‘주의’이다.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연고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연고를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연고주의는 가족중심주의·지역주의·학벌주의·종파주의 등으로 표현되듯 혈연·지연·학연·신연 등에 따라 이해관계와 관심을 함께 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배타적 성향 또는 태도로 정의된다. “공적 제도보다는 개인들 간의 사적 연결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과 협력을 조직화하는 행위패턴”<sup>12)</sup>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연고주의는 그것이 배타적·폐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연계라는 점에서 가치편향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왕왕 부정적 의미를 가진 연줄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sup>13)</sup>

연고주의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특정한 연고주의적 태도나 연고주의적 행위<sup>14)</sup>가 한국사회에서 일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위의 연고주의 개념에 따르면 연고주의가 한국만의 특성일 수는 없다.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인간의 기본욕구의 연장선 혹은 집단생활의 보편적 의식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연고주의이다. 이 점에서 “연고주의의 소멸보다는 연고주의와 보편적 사회조직화 원리와의 상보적, 창조적 결합을 통한 연고주의 자체의 창조적 진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sup>15)</sup>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반면 한국인만의 특수성이

10) 윤경우, “한중일 3국 기업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비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中蘇研究』 29권 4호(2006), 66쪽.

11) 연줄과 뺨의 의미를 부여하여 속어로 (a) pull을 쓰기도 한다.

12) 이재혁·박준식, “한국인의 사회연결망과 연고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2000), 134쪽.

13) 예를 들면 김용학,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전통과현대, 2003), 99-127쪽의 경우가 그렇다.

14) 연고주의적 태도와 연고주의적 행위는 다르다. 인식과 현상의 다름 때문에 그렇다. 김선업, 앞의 글, 323-324쪽 참조.

15) 위와 같음.

라거나 유교적 전통과 관련을 짓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연고주의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타인 또는 타 집단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정의로운 사회로 민주주의를 가정한다면 개인 자유의 확장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두 과제의 교차지점이 바로 타인 또는 타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연고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 해악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등은 가족적 친밀성을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계층 간의 융화와 공동체적 신뢰를 강화하는 일정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고에 근거한 다양한 집단은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일정한 작용을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연고주의가 사회 전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연고주의 강화가 곧 신뢰사회를 만들고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꾸로 연고주의의 강화는 타인과 타 집단을 배제한 나와 내집단의 이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발전과 전체 공동체의 친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고주의는 첫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이익 지향성, 둘째 공적(公的)이지 못한 사적(私的) 당파성, 셋째 친밀한 집단의 자기중심적 내부거래 때문에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것이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자본의 성장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접목할 경우, 특히 부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 2.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담론의 등장과 유행

1980년대 들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87년 6월 항쟁과 90년대 민주적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성과를 기존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이런 논의는 1994년 Foreign Affairs 3·4월호에 실린 리관유(李光耀) 당시 싱가포르 수석대신의 「문화는 숙명이다」<sup>16)</sup> 인터뷰와 같은 잡지 11·12월호에 실린 김대중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기고문 「문화는 숙명인가」<sup>17)</sup>가 이 이 논쟁을 가열시켰으며,<sup>18)</sup> 1997년 창간된 계간 『전통과 현대』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논쟁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잡지의 창간호 특집은 「유교와 21세기 한국」이었다. 유교의 재해석과 비판적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전통 유가사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상관없이 유교민주주의 혹은 유교자본주의라는 단정적 개념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sup>19)</sup> 그 후 학술잡지 『오늘의 동양사

16) *Foreign Affairs* 자카리아 편집장과의 인터뷰 전문으로 원제는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이다.

17) 원제는 *Is Culture Destiny? :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이다.

18) 리관유와 김대중 등의 한국어 번역 전문 및 기타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관련된 책은 1999년 이승환·장현근 외, 『아시아적 가치』(전통과현대)로 출판되었다.

19) 특히 함재봉은 이 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냈다. 예컨대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전통과현대, 2000a), 『탈근대와 유교』(나남, 1998b)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유교민주주의, 왜 & 어떻게』(전통과현대, 2000b)란 책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상』(예문서원) 등은 아시아적 가치를 중요한 특집논제로 여러 차례 다루었다.

유교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국민호<sup>20)</sup> 등도 일찍이 다루었지만, 사회학자 유석춘의 연구가 특히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냈다. 1997년부터 『전통과 현대』를 통해 유교자본주의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위의 꼴만, 퍼트남 등의 이론을 원용하며 한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되어오던 ‘연고(緣故)’ 개념<sup>21)</sup>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급기야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그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자본(또는 사회적 자본), 신뢰, 인적 자본, 합리성과 효율성 등 개념으로 한국의 연고주의를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연고주의와 동아시아의 세계화」를 외치기도 하였다<sup>23)</sup>.

한편,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불어 닥친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를 두고 한국에선 그 원인을 전통사상 특히 유교문화에서 찾는 사람이 많았다. 유교 전통을 두고 이렇게 양극단을 치달리던 연고주의 관련 담론들은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다양한 접근과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어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및 이론 틀로 정립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열어 연고주의를 다루고 그 연장선에서 『아시아문화연구』 15집(2000)의 특집으로 일본·동남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고주의 담론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사회학회에서는 2003년 6월 제주대학교에서 한국 연고주의와 관련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결과물은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전통과현대, 2003)란 책으로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근대화 혹은 산업화 과정에서 연고주의는 한국인의 잘못된 관행이나 전통의 그릇된 유산으로 얘기되어오던 개념이었다. 일제의 한국사 왜곡시도와 그것을 계승한 기존 한국사에서 한국인의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강조되어온 사대주의, 사색당쟁 등과 더불어 전근대적·봉건적이고 비합리적·비효율적인 한국문화의 전통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런데 이승환의 얘기처럼 “식민지적 근대화는 철저하게 반유교적인 근대화”였으며 폭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지배계층들이 “국민에게 친숙한 ‘유교’라는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sup>24)</sup>한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5백년을 유교이데올로기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에 대해 매우 불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대 한국 지성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학자들이 연고주의를 ‘아무 근거표명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유교의 유산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20) 예컨대 국민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제31권(1997), 29-60쪽 등 참조.

21) 예컨대 김병찬, “지방자치와 연고주의”, 『경대논문집(慶大論文集)』 인문·사회 13집(1969), 123-133쪽 등에 일찍부터 언급하였다. 그는 연고주의를 ascriptive solidarities로 정의하였다. 전근대의 부정적 유산으로 간주한 것이다.

22) 유석춘·장미혜, “연고집단과 사회발전,” 이승환 외저, 앞의 책(1999), 123-162쪽; 유석춘 편저,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전통과현대,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자유기업원, 2003a);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그린, 2003b) 등.

23) 유석춘·장미혜·김태은, “동아시아 연고주의의 세계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2000), 87-116쪽.

24) 이승환,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0집(2004), 57-58쪽.

### Ⅲ. 한국 근대화과정 중 나타난 연고주의의 반유교성

#### 1. 한국의 산업화와 연고주의 경향의 출현

전통사회든 근대사회든 연고주의가 인간사회의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각 사회마다 그 구체적 양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고주의의 구체적 양태를 위에서 예로 든 혈연·지연·학연·신연·직연(또는 업연) 다섯 가지로 압축하여 보면, 인구가 적고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전통사회일수록 연고주의적 행위가 강하고, 기업의 이윤창출과 경제적 이익이 강조되는 근대사회일수록 연고주의적 태도가 덜 나타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sup>25)</sup> 일반적으로 “연고주의는 산업사회나 근대사회로의 사회적 분화나 변동과정에서 기능적 대안물이나 대체물로서 유사(類似) 통합적 역할을 수행”<sup>27)</sup>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고주의는 새로운 산업사회 통합이 잘 안 될 경우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정부분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위 환경이 불확실할 때 불확정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연줄에 기대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연고주의의 경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고주의의 어떤 양태가 주된 문제였는지에 대해선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고착화가 진행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연을 중심으로 한 투표행위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오늘날도 해결이 난망한 실정이며 관련 논의 또한 대단히 많다. 한국 선거정치 영역에서 혈연·지연·학연·신연·직연은 그 강력한 작용이 갈수록 더해가 전통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sup>28)</sup>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기간 동안 경제개발에 따른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기 전 선거양태는 이와 달랐다는 점에서<sup>29)</sup> 이와 같은 연고주의 행위가 전통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교적 전통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이다.

혈연의 경우 일부 사기업의 혈통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회관계의 그물망이 매우

25) 예를 들면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총서3, 일진사, 1990); 김선업, “연고주의의 분석적 의의”, 『고려사회학논집』 제6집(1991), 317-342쪽; 장승희, “유교적 가치질서와 시민윤리의 정립 -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61집(2006), 103-128쪽 등이 그런 경우이다.

26) 특히 막스 베버 등의 근대화 이론에선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연고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행위가 근대관료주의와 법의 문화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였다.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11. 윤경우, 앞의 글, 69쪽 참조.

27) 김선업, 앞의 글, 329쪽.

28) 이념적 지향이 혈연이나 지연을 압도하는 구미 정당정치체제 하의 선거와 같은 정치의 틀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를 전근대적이라고 평가한다면 역시 특수성보다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29) 김상태, “한국 지역주의의 현실과 문화적 맥락 ; 근,현대 지역갈등의 양상과 그 추이”,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0집(2003), 75-94쪽 등 참조.

복잡해진 현대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공적 제도적 영역에선 혈연적 연고주의가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김용학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연의 경우도 학연을 통제해버리면 그다지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sup>30)</sup> 지연은 향토애에 바탕을 둔 타 지역 이주자들의 연고주의적 행위를 뜻하지만 지역적 연고가 수많은 변수에 따라 매우 복합적인 변수로 나타난다. 예컨대 출신 도(道)·시군(市郡)·면리(面里) 단위에 의미 있는 수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sup>31)</sup> 따라서 위의 선거정치적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사회의 지연을 부정적 연고주의 유산으로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동남아의 화인(華人)사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중국계 상인들끼리 동종업종에 대한 강한 관계(關係)망을 유지하는 업연사회이며,<sup>32)</sup> 일본은 직업과 기술의 전수를 중시하여 혈통이나 지연에 집착하지 않는 ‘회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직연사회’이지만,<sup>33)</sup> 한국은 이 두 가지 연고주의가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종교적 편향성에 바탕을 두고 타 종교에 대하여 강한 배타성을 보이는 사회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신연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지만, 부정적 연고주의 유산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상과 같이 혈연·지연·신연·직연업연이 현대 한국사회를 추동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여전히 연고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정적 병리현상을 많이 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교적 전통 때문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기업문화를 연고주의와 연관시켜 실증 연구를 한 윤경우는 한중일 3국은 연고주의가 여전히 성행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신뢰와 상호부조,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34)</sup>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 및 시민사회 수준이 월등히 높은 한국·일본이 중국보다 연고주의가 더 발달했으며,<sup>35)</sup> 혈연의 영향력은 중국이 가장 강하지만, 지연과 학연은 한국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학연은 지연이나 혈연보다 강하다. 연줄문제의 핵심은 학연이란 얘기다.

## 2. 학연의 병폐와 비유교적 유산

한국에서 학연의 문제는 연고주의 병폐의 온상이다. 이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한 김용학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한국사회 학연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창출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한국 사회에서 “학연은 혈연이나 지연과 달리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결합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sup>36)</sup>는 것이다. 한국 근대사회에서 인적

30) 김용학, 앞의 글, 99쪽.

31) 문석남 외, 앞의 책 등 참조.

32) 이에 관한 연구로는 박기철, “화교네트워크와 경제적 연고주의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2000), 143-170쪽.

33) 윤경우, 앞의 글, 68쪽.

34) 위의 글.

35) 위의 글, 69쪽.

36) 김용학, 앞의 글, 104쪽.

자본이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 즉 대학입학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를 뜻하며, 서열화 된 특정 학교 출신 집단의 인적 자본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것이다.<sup>37)</sup> 더 구체적으로 “서열 1위 S대는 2위인 Y대보다 12배 정도 엘리트를 배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학벌에 따른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sup>38)</sup> “대학별 엘리트 진입 불평등은 국가고시 합격률의 차이를 훨씬 상회한다.”<sup>39)</sup>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연줄을 관리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sup>40)</sup> 특히 좋은 대학, 즉 연줄이 통하는 대학 입학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는 비정상적 사회구조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연고주의가 사회적 신뢰를 증대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논의<sup>41)</sup>는 성립할 수 없다.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다.<sup>42)</sup> 이는 가족 이웃 직장 지역협회 기업 동아리, 공식 및 비공식 장소, 다양한 공동체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축적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호협동, 호혜, 신뢰, 의무, 시민의식, 협동, 신임, 가치공유, 공동체참여, 공민참여, 자원봉사, 사회관계망, 시민사회 연대 등의 양상을 말한다. 그 핵심은 신뢰이다.<sup>43)</sup> 이렇게 서구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자본의 의미는 한국 전통의 연고주의가 갖는 함의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시장과 자본주의가 보편주의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특수주의적 관계를 발달시켰으며, 사적 영역의 성장을 위해 공적 제도를 희생시키는 연고주의 병폐가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배타적·폐쇄적·이기적인 것으로 갈등의 원천이 되는 연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인간 관계 내지는 개별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사회적 자본은 보편주의적 특성을 지니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윤경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적인 미덕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는 자본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연고중심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신뢰행위를 중심요소로 하는 사회자본(societal capital)은 사적 사회자본(private societal capital)이다.<sup>44)</sup> 결국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연고 내 집단에 집착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폐쇄적·이기적 형태의 병리현상만 낳는 것이다. 이때의 연고주의는 relationship이나 network이 아니라 nepotism이 된다.

연고 자체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연고를 중시하거나, 연고자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거나, 계약서나 중간비용 없이 거래를 하는 등 사적 관계망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고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이해관계를

37) 위의 글, 107쪽.

38) 위의 글, 118쪽.

39) 위의 글, 119쪽.

40) 위의 글, 122쪽.

41) 김일철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전통과현대, 2003); 유석춘 외, 앞의 글; 유석춘, 앞의 책(2003a); 유석춘, 앞의 책(2003b) 등.

42)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p.19. 윤경우, 앞의 글, 75쪽 참조.

43) 윤경우, 위의 글, 75쪽.

44) 이 점에서 유석춘 등이 제기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연고주의는 개념의 혼란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윤경우, 위의 글, 76-77쪽, 특히 77쪽의 각주27 참조.

중심으로 여러 방면의 독점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학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연고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호고 호혜와 청탁으로 차별함으로써 부패사회 갈등의 원천이 된다. 이는 경제행위에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sup>45)</sup> 뿐만 아니라 법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를 무너뜨려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학연은 해방 이후 왜곡된 현대사 및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맹목적으로 서구 문화를 추종하면서 형성되었다. 소위 인류대학이 사회적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핵심적인 연줄망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상급학교 출신일수록 소위 인류대학 출신일수록 동창모임 등이 활발하고 연고적 동원능력이 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46)</sup> 이렇게 한국사회의 특수주의적 연고주의가 횡행하게 된 것은 전통 유산의 계승도 아니요, 동시대 세계문화의 경향성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자발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못한 산업화의 결과였으며, 비정상적 학연중시의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현대사 전개과정에 자주 등장했던 여러 가지 왜곡, 일제가 남긴 수많은 상처, 권위주의 정권이 불러온 각종 폐해,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복종 등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강화된<sup>47)</sup> 결과이다.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왜곡된 근대화 및 급격한 산업화 과정의 후유증인 것이다.

혈연·지연·학연 모두 한국 근대사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말이다. 혈연은 원래 대부분의 동족 촌에서 내적 유대관계로 기초공동체의 질서<sup>48)</sup>를 유지하던 틀이었다. 그런데 문벌을 형성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연고주의의 한 틀이 된 것은 전통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경쟁사회가 된 근대화의 산물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지연에 근거한 파벌 또한 우리 지역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 타지로 진출한 사람들의 이익집단화나 지방출신의 수도권에서의 역할이라는 근대화의 산물이다. 학맥 또한 학문을 인연으로 한 전통사회의 학통경쟁이 아니라 배타적 이익지향을 하게 된 것은 근대화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연줄망이 보편화된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수의 농촌거주자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생활구조가 서구적인 핵가족 중심의 생활구조로 탈바꿈하게 된 것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sup>49)</sup>

권위주의적 한국근대화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복합적인 연줄망의 동원을 통해 무임승차를 노리며 등장한 배타적 이기주의를 전통의 유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유교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욱 근거 없는 주장이다.<sup>50)</sup> 오히려 유가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러한 배타적 이

45) 위의 글, 68쪽.

46) 문석남, 앞의 책; 김용학, 앞의 글.

47) 이승환, 앞의 글; 장승희, 앞의 글 등.

48) 예컨대 조선시대 향약도 이와 같은 기초공동체의 규범이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연고주의라기 보다 작은 공동체내의 공적 규범이다.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을 서로 살피고 고쳐준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서로 사림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 환난상휼(患難相恤,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이 그 규범이다.

49) 김현주 외, 『정·체면·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한나래, 1995)의 9장.

50) 일본에서도 연고주의는 거래비용의 절감과 효율근대화의 순기능을 한 것으로 간주된 적이 있으나, 나중 병리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지금은 강한 연고사회에서 탈 연고사회로 가고 있음도 이 반증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나 유교와는 관련이 없었다. 최은봉, “일본 정치사회의 변동과 문화적 특질: 연고주의

기성의 극복과 연고주의의 배척을 주장하였다.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그 당연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IV. 유교의 반(反)연고주의 전통

### 1. 반연고주의 유교담론

연고의 중국적 개념은 關係(관시)일 테고, 대만(臺灣)의 정치와 사회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용어인 혈맥(血脈)·지맥(地脈) 등 인맥이나 친밀한 집단을 표현하는 사당(死黨)<sup>51)</sup>이란 용어를 보면 한국 외 지역에서도 정치사회를 설명하는데 연고 집단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홍콩과 대만의 가족 중심적 소규모 생산망이 친족·친구·동향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 또한 권위주의적 집합주의 성격을 가지며 강한 혈연적 연고주의가 통용되는 사회이다.<sup>52)</sup> 가족중심적 생산망과 혈연 중시의 풍토를 “유교적 가부장제적 특징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는 전통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고 볼”<sup>53)</sup>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아시아나 유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 문헌에서 연고 또는 연고주의를 오늘날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념적 동질성을 따진다면 비(比)<sup>54)</sup>·비주(比周)<sup>55)</sup>·비덕(比德)<sup>56)</sup>·비당(比黨)<sup>57)</sup>·붕(朋)<sup>58)</sup>·붕가(朋家)<sup>59)</sup>·당(黨)<sup>60)</sup>·붕당(朋黨)·붕당비주(朋黨比周)<sup>61)</sup> 등의 용례를 통해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태생적으로 주어지는 혈연·지연의 문제보

의 작동과 한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2000), 171-199쪽.

51) 연(緣)을 중시하는 대만의 사회풍토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거기에 현대 대만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구조가 본지인(本地人)과 외성인(外省人) 사이의 정치경제적 갈등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항상 혈맥(血脈)·지맥(地脈)에 의해 죽도록 같이한다는 사당(死黨)이 정치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52) 윤경우, 앞의 글.

53) 위의 글, 81쪽.

54) 『禮記』 緇衣편 : “가까운 신하들이 사사로운(연고로) 패거리를 짓는다.”(邇臣比矣. 鄭玄은 비를 私相親으로 주석함)

55) 『管子』 立政편 : “다양한 연고 집단이 패를 지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주장이 득세하면.”(群徒比周之說勝)

56) 『書經』 洪範편 : “사람들이 패거리를 맺어 사사로움을 도모함이 없으면.”(人無有比德, 宋 蔡沈의 集傳엔 比德을 私相比附라 함)

57) 『管子』 君臣下편 : “패거리를 끌어다 파벌을 맺는 자는 죽인다.”(比黨者誅)

58) 『書經』 洛誥편 : “어린 아이들에게 연고 집단을 삼가도록 함.”(孺子其朋)

59) 『書經』 泰誓中편 : “(신하들이) 연고 집단을 이루어 스스로 원수를 만들.”(朋家作仇)

60) 『國語』 晉語五편 : “임금을 섬기는 자는 서로 견주되 파당을 짓지 않는다.”(事君者比而不黨)

61) 『韓非子』 飾邪편 : “못 신하들이 연고 집단을 형성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와 다름을 배척함.”(群臣朋黨比周)

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배타적 이익지향성·비공공적 파당성·친밀 집단의 내부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혈맥·지맥·학맥의 병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즉 출발지인 연고의 문제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겨난 당파적 이익지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전통 정치의 틀 속에서 인맥에 의한 문제는 후대의 정치에서도 끊임없는 골칫거리였다. 후한(後漢)의 당고(黨錮)<sup>62</sup>나 당(唐)의 우승유(牛僧孺)당·이덕유(李德裕)당 논쟁, 송(宋)의 촉(蜀)·낙(洛)·삭(朔)이란 학맥 중심의 3당<sup>63</sup>, 명(明)말의 동림당(東林黨)사건<sup>64</sup> 등은 모두 연고주의와 깊게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중국이나 유교의 특성이라기보다 어디든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평등한 개인에 기초하지 않고 선형적인 혈맥이나 관계의 계승에 의해 상하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유교적 인륜관계가 연고주의라는 병을 불러왔다는 시각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시각들은 대체로 유교적 가족주의 혹은 가족윤리와 결부시킨다. 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와 유교의 오상과 오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거나<sup>65</sup>, 배타적 속성을 지닌 가족윤리를 강조한 동양의 윤리와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영향이라거나<sup>66</sup>, 가족 내에서는 효를 근본으로 삼으면서 개인을 독립된 자아로 의식하기보다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구성인자로서 전제하면서 수평적 관계는 중시되지 않고 수직적 관계만 강요한다거나<sup>67</sup>, 한국에서 “사림세력은 특정한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조직되었고 관직으로의 진출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고 집단의 전통적인 존재형태”라거나<sup>68</sup> 등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 중심적 농업사회·가족이익의 배타성 등은 동아시아만의 특수성도 아니고, 유교만의 특성도 아니다. 유교에선 오히려 연고주의적 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였다. 주된 논란인 삼강오륜 문제를 대표적인 유가사상가들의 주장을 통해 규명해보자. 한(漢)대에 성립된 삼강(三綱)의 개념은 차치하고, 『맹자』에 처음 등장하는 다섯 가지 인륜(人倫)을 보자: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히 거처하는데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에 가깝다. 성인은 이를 걱정하여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인륜으로 가르쳐 부자간엔 친근함이 있고, 군신 간엔 의

62)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환관의 극성에 반대한 이옹(李膺) 등이 환관들을 파벌집단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환관들이 태학(太學)의 학맥으로 뭉친 유사(遊士)들을 봉당으로 비방하여 200여명이 종신 금고(禁錮)형에 처하도록 한 사건으로 1차에 이은 2차 사건 때는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사화(士禍)의 성격을 지닌 첫 번째 사건일 것이다.

63) 송(宋) 인종(仁宗)때 구양수(歐陽修)·윤수(尹洙)·여정(余靖) 등은 사람들에 의해 봉당(朋黨)으로 지칭되었다. 구양수는 이 때문에 「봉당론(朋黨論)」을 지어 자신의 청명함을 밝히기도 했다. 학연과 지연에 결부된 연고주의가 부른 병이다.

64) 명나라 말기 신종(神宗) 때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중심으로 고헌성(顧憲成)의 주동 하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연·학연이 얽혀 기사(幾社)·복사(復社) 등 파당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어 명나라 멸망의 실마리가 되었다.

65) 이도형 편저, “한국행정과 부패문화”, 『한국정부론』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8), 77-78쪽.

66) 국민호, “유교 문화적 전통과 자유민주주의”, 『동양사회사상』 제3집(2000), 5-38쪽.

67) 김동준, “유교와 한국의 시민의식”, 『유교와 한국사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9).

68) 유석준·장미혜, 앞의 글(1999), 144쪽.

로움이 있으며, 부부간엔 구별이 있고, 어른 아이 사이엔 순서가 있고, 친구 간엔 믿음을 가지도록 하였다.”(『孟子』滕文公上편)<sup>69)</sup>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의 연고를 긍정하고 있지만 “선배와 후배, 연장자와 연소자와 같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서열화 된 불평등한”<sup>70)</sup> 연고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애로움에 따른 자식의 효도[父慈子孝], 군주가 예로 대함에 따른 신하의 충성, 부부간의 역할의 구분, 형의 우애에 따른 아우의 공손함[兄友弟恭], 친구간의 믿음 사이엔 서열화 된 불평등이 없다. 오히려 연고 집단의 사적 이익추구를 경계하고 인의(仁義)라는 공적 질서로 복귀하라는 의미에서 맹자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금수와 다른 인의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관계상의 오류를 얘기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중국이나 현대 한국이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연고가 없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배타적 이익의 추구·비공공적 당파성·집단의 내부거래라는 연고주의의 병 또한 언제 어느 곳이든 발생한다. 당연히 양심적 지식인들의 고민은 여기에 모아진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 및 공공의 선을 추구하던 유가 정치사상가들은 연고주의 극복을 위해 고뇌를 하였던 것이다.

공자(孔子)는 “군자는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되 사적으로 당파를 짓지 않으나, 소인은 사적으로 당파를 맺을 뿐 두루 관계를 맺지 않는다.”<sup>71)</sup>(『論語』爲政편)고 말한다. 순자(荀子)도 “군자는……친밀한 집단끼리 교류를 하지만 내부거래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변론을 잘하지만 화려한 문장을 구하지 않는다.”<sup>72)</sup>(『荀子』不苟편)고 한다. 특히 순자는 연고를 지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배타적으로 당파를 짓는데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런 사람은 나라의 질서를 망칠 사람[篡臣]으로 배척하였다: “연고 집단끼리 결탁하여 패거리를 지어서 군주를 에워싸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나라를 망칠 사람이다.”<sup>73)</sup>(『荀子』臣道편)

## 2. 유교와 극복대상으로서 연고주의

유교에서 연고주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 연고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그것으로 당파를 짓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함을 철저히 금기하였다. 『서경(書經)』홍범(洪範)편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파당을 짓지 않으면 왕도가 넓혀질 것이며, 파당을 짓거나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으면 왕도가 평탄할 것이다.”<sup>74)</sup> 같은 편에 “무릇 그 백성들이 그릇된 당파를 짓지 않고 사람들이 연고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군주가 법칙을 잘 시행할 수 있다.”<sup>75)</sup> 정치적으로 연고 집

69) 飽食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爲司徒，教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叙，朋友有信。

70) 유석춘·장미혜, 앞의 글(1999), 152쪽.

71)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72) 君子……交親而不比，言辯而不辭。

73) 朋黨比周，以環主圖私爲務，是篡臣者也。

74) 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

단의 당파주의와 내부거래 또는 사적이익의 추구를 없애는 것이 왕도의 실현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자는 정치가로써 또는 훌륭한 인격자로써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두루 (연고) 집단을 이룰 수는 있으나 파당은 짓지 말아야 한다.”<sup>76)</sup>(『論語』衛靈公편)고 충고한다.

특히 현대 한국사회 연고주의의 가장 큰 병폐로 여겨지는 사적 이익의 추구와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에 대해 유가사상가들은 금기로 여겼다. 공적인 의를 저버리고 사적인 이익만 쫓으면 세상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먼 길을 온 맹자에게 양혜왕(梁惠王)이 “선생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오신 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입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대뜸 “왕께신하될 이를 얘기하시오? 인의가 있을 따름이지요.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하고 말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하고 말할 것이며, 또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하고 말할 것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이를 다투는 그런 나라는 금방 위태로워질 것이요.”라고 대꾸한다.(『孟子』梁惠王上편) 의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도리를 아는 것이다. 대의명분이요, 남에 대한 배려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원만한 인간관계요, 문명의 수레를 움직이는 사람다운이다.

그래서 유교사상가들에게 의는 이보다 중요한 근본이었다. “물질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윤리도덕 또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荀子』大略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그것을 예(禮) 중심 사회로 규명하였다.

물론 유교 또한 다른 문화유형과 마찬가지로 연고 또는 연고주의와 전혀 무관한 사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교가 배타적 이익지향성에 반대하고, 사적 파당성을 부정하며, 친밀한 내부집단의 거래를 멀리한 것은 인의라는 공공(公共)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유교는 현대 한국사회 연고주의 담론에서 등장하는 이익지향성과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사상이었다. 유교는 연고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서 생각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왕도(王道)사회는 비연고주의적인 예(禮)에 바탕을 둔 공적 질서(public order) 혹은 공공사회(common society)였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가치중립적 개념인 연고 혹은 연고 집단 문제가 공적 제도를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연고주의라는 질곡에 빠지게 된다. 과도한 연고주의는 필경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국 연고주의의 병리적 현상은 왜곡된 현대사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추동된 급속한 산업화의 후유증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소위 절차적 민주화를 완성한 최근에 들어 한국사회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공적 제도의 확충, 그리고 시민권의 강화와 보편적 시민의식이 확대됨으로써 굴곡을 겪었던 산업사회의 많은

75)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

76) 群而無黨.

병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적 성취를 위해 시민의식이 확대되고 시민적 신뢰가 강화된다면 연고주의 혹은 연줄효과에 기대는 행태를 크게 벗어나리라고 생각한다.<sup>77)</sup> 분권적이고 보편적인 사회규칙과 공적 제도가 신뢰를 받고 사적 이익추구 기제에 대한 통제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게 될 것이다.

물론 연고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나 연고주의 자체는 인간의 기본적 심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없애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사회로 나아가면서 그 병리적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연고주의에 대한 합리적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불철저한 유교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유교 → 가족중심주의 → 연고주의] 이해방식을 깨고 유교 재해석을 통해 반(反) 연고주의적 유교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교의 긍정적 측면까지 금기·부정해왔던 뒤틀린 근대화과정을 반성하고 왕도 혹은 인의의 실현이라는 공적 목표를 민주적 시민사회와 연결시키고 사적 연고주의를 깨기 위한 유교의 노력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조선 왕조가 끝나고 100년이 흘렀지만, 그리고 서구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수입학문을 팔고 사는 사람이 이 나라의 담론을 주도한지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가 유교에 대체할만한 새로운 이념을 내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 가치로 취급한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연고주의의 온갖 병리현상이 난무하며 시민사회의 내적 성장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시키려 했던 우리 전통사상(혹은 유교)에 뿌리를 두고 그 비판적 반성 위에 문화융합(cultural fusion)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고주의 극복담론을 이끌 필요가 있다.

탈 연고주의와 새로운 시민사회 발전은 진지한 학문적 반성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연고주의의 긍정적 현상도 유교 때문이고, 병리적 현상도 유교 때문이며,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도 유교 때문이고, 경제적 실패도 유교 때문이라는 불철저한 유교 관련 담론이 횡행하는 것은 현대 한국사회가 유교(또는 유가사상)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유가사상에서 강조하는 오륜의 목적은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것은 상호주의 담론이지 권위주의에서 출현한 연고주의적 사유가 아니다. 인의에 입각한 공공선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이기심의 확대가 아닌 통제로 이익 편향의 연고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사상의 본래 취지에 가깝다.

77) 이재혁·박준식, 앞의 글, 139쪽.

## 참 고 문 헌

- 《十三經》(中華서국본, 1984)
- 국민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제31권, 1997, 29-60쪽.
- \_\_\_\_\_, 「유교 문화적 전통과 자유민주주의」. 『동양사회사상』 제3집, 2000, 5-38쪽.
- 김동춘, 「유교와 한국의 시민의식」. 『유교와 한국사회』(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9.
- 김선업, 「연고주의의 분석적 의의」. 『고려사회학논집』 제6집, 1991, 317-342쪽.
- 김병국, 「反유교적 유교정치」. 『전통과현대』 1997 여름 창간호, 1997.
- 김병찬, 「지방자치와 연고주의」. 『경대논문집(慶大論文集)』(인문·사회) 13집, 1969, 123-133쪽.
- 김상태, 「한국 지역주의의 현실과 문화적 맥락 ; 근,현대 지역갈등의 양상과 그 추이」.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0집, 2003, 75-94쪽.
- 김용학,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전통과현대), 2003, 99-127쪽.
- 김일철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서울: 전통과현대, 2003.
- 김혁래, 「한국 가족자본주의와 기업구조」. 『전통과현대』 1997 가을호, 1997.
- 김현주 외, 『정·체면·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1995.
-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총서3). 서울: 일진사, 1990.
- 박기철, 「화교네트워크와 경제적 연고주의 -경제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 2000, 143-170쪽.
-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 1997 여름 창간호, 1997, 74-93쪽.
- 유석춘·장미혜, 「연고집단과 사회발전」.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현대, 1999, 123-162쪽.
- 유석춘·장미혜·김태은, 「동아시아 연고주의의 세계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 2000, 87-116쪽.
- 유석춘 편저,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서울: 전통과현대, 2002.
- \_\_\_\_\_,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서울: 자유기업원, 2003a.
- \_\_\_\_\_, 공편,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2003b.
- 윤경우, 「한중일 3국 기업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비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中蘇研究』 29권 4호, 2006, 47-99쪽.
- 이경훈, 『인맥만들기』. 서울: 일터와사람, 1993.
- 이도형 편저, 「한국행정과 부패문화」. 『한국정부론』, 충주: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8.

- 이승환, 「유교와 인권: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 99-119쪽.
- \_\_\_\_\_,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0집, 2004, 45-66쪽.
- 이승환 · 장현근 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 이재혁 · 박준식, 「한국인의 사회연결망과 연고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 2000, 117-141쪽.
- 이혜영, 「학력주의와 학력경쟁」.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2, 547-583쪽.
- 장승희, 「유교적 가치질서와 시민윤리의 정립 - "화(和)"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61집, 2006, 103-128쪽.
- 장현근, 「공자는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전통과현대』 1997 여름 창간호, 1997.
- \_\_\_\_\_, 「사회철학으로서 현대 儒學의 行路」.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21집, 1999, 31-54쪽.
- \_\_\_\_\_, 「탈(脫)연고주의와 유가사상의 현대화」(Affective Networks and Modernization of Confucianism). Conference on Social Network and Civil Society: A Comparative Approach,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April 1-4, 2002, pp.1-10.
-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서울: 사계절, 1997.
- 최석만, 「유교와 공동체 윤리」. 황필홍 외,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한맥, 1997, 149-180쪽.
- 최은봉, 「일본 정치사회의 변동과 문화적 특질: 연고주의의 작동과 한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15호, 2000, 171-199쪽.
- 퍼트남 저 ·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
- 한형조, 「유교는 미래에 있다」. 월간 『새천년 emerge』 2000년 5월호, 2000, 56-69쪽.
- 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a, 120-123쪽.
- \_\_\_\_\_, 『탈근대와 유교』. 서울: 나남출판, 1998b.
- \_\_\_\_\_,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현대, 2000a.
- \_\_\_\_\_, 『유교민주주의, 왜 & 어떻게』. 서울: 전통과현대, 2000b.
- 함한희, 「연고주의와 경제활동」. 『문화의 발목을 잡은 한국경제』, 서울: 현민시스템, 1999.
- Jame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pp.95-120.
- Gary Hamilton, "Why no Capitalism in China: Negative Questions in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2, 1985, pp.187-211

Francis Fukuyama,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Theodore 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1961, pp.1-17.

Nepotism Discourse in Korean Society : It has nothing to do with Original Confucian Values

Abstract

# Nepotism Discourse in Korean Society : It has nothing to do with Original Confucian Values

Chang, Hyun-Guen<sup>78)</sup>

Confucianism has been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Korean Society. Recently some scholars in fields such as Asian Studies, Political Economy and Sociology have emphasized that Confucianism can be attributed to core factors including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Some Sociologists wish to call your particular attention to Korean network society as an affectional relationship.

They think the 'network-oriented' nature of Korean society came from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can understand it as a form of reducing 'transaction cost' for the entire Korean society, and steer industrialized Korea to prosperity. Some people say that conceptualized 'Confucian Democracy' or 'Confucian Capitalism'.

It proved to be true? We know that Korean traditional society is very different from the West where society is ordered around individual values, but have a rich contents of community. Confucian values will be more esteemed and treasured by people as they became harder maintain, as it becomes impossible economically to practice those virtues. Confucianism not be connected with Capitalism.

Network is extremely important for Human beings(not only Korean) because it is through building and maintaining ties that they order their world and pursue their goals. It is also an important means to build trust. As we all know, filial piety, discipline, work ethic, and meritocracy are not only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but also can be found in other cultures, they were shared and practiced in the U.S. during the forties and fifties, for example.

To be sure, their opinion had the effect of booting public's awareness of Confucianism. However, their overemphasize came to the detriment of serious and balanced inquiry into the history, logic, and ideals of this traditional Confucianism. There is not an indissoluble connection between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Korean discourse of nepotism or the network societ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task of modernizing

---

78) Professor, Yong-In University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need not lead to conservative conclusions, and need to develop normative arguments which would explain why certain values should continue to remain influential and why others should not.

■ 논문접수일 : 2008년 4월 18일, 논문심사일: 2008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5월 26일